

사회

■ 광주·전남 태풍급 강풍 피해 속출

간판 폭삭... 통유리 외장창... '날벼락'

컨테이너 부서지고 선박·항공기 무더기 결항

3일 광주·전남 지역에 강풍 특보가 발효되면서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피해신고가 200여건에 달했다.
 ◇교통신호등 부러지고 담장 무너져=이날 오전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제2공영주차장 주변 100㎡ 규모의 조립식 건물이 강풍에 폭삭 주저앉고 컨테이너 3개 등이 부서졌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행인 1명이 이마 등에 부상을 입었고,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됐다. 또 송정동 인근 철도청 부지 담장 30m가 무너지면서

인근에 주차된 차량 4대가 피해를 입었다.
 수완동 상가밀집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간판이 인도로 떨어져 내렸으며, 광산구 우미아파트 1.5m 높이의 담장 150여m가 강풍으로 인해 보도쪽으로 쏟아져 내렸다.
 또 이날 오후 서구 광천동 모빌딩에서 통유리가 인도를 덮치면서 행인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서구 치평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는 신호등이 부러져 교통 정

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구 서창동주민센터에서는 가로·세로 각 30cm 크기의 지붕동판 200여장이 바람에 날려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5시까지 광주·전남소방안전본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각각 53건, 150여건에 달했다.
 ◇선박·항공편 결항 사태=이날 오후 3시까지 목포시 대반동 신안비치호텔 앞바다에서 198t 목포선적 유람선 미리내크루즈호가 강풍을 피해 안전수역으로 가다 기관고장으로 표류했다. 선장 박모씨 등 선원 3명이 탄 이 유람선은 강풍에 고하도 앞 해상

으로 표류하다 긴급 출동한 해경 경비정의 도움으로 목포수협 부두까지 1시간30분 만에 예인됐다.
 광주공항에서는 이날 오전 제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AL1901편이 결항되는 등 광주와 제주, 김포를 오가는 항공기 10편이 강풍에 뜨지 못했다.
 또 서해남부와 남해 전 해상에는 최고 5m 이상의 높은 파고로 풍랑 경보가 발효돼 목포~제주 등 59개 항로 89척이 결항했으며, 여수공항에 몰아친 강풍으로 항공기 5편이 결항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떨어진 간판 3일 강풍으로 인해 간판 파손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한 상가건물의 간판이 떨어져 점포 직원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부러진 신호등 순간 최대풍속 18.7m/s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부러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롯데마트 앞 사거리 신호등.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4월 강풍 왜

대풍과 비슷한 피해를 준 '4월 강풍'은 왜 불었을까?
 이번 강풍은 한반도 대기 하층부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상층부에는 차가운 공기가 빠르게 남하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이로 인해 지상의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해 기

대기 상하 큰 기압차로 공기 흐름 빨라져

압 차가 커지면서 공기 흐름이 빨라져 강풍이 불게된 것이다.
 이번 강풍의 최대순간풍속은 신지도(완도)에서 최고 32.6m/s를 기록했으며 이는 순간적으로 태풍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15~30m/s의 강풍이 몰아쳤다.
 특히 순천(20.6m/s), 진도(30.7), 영광(26), 장흥(24.2), 고흥(26.5) 등 광주·전남 5개 시군에서는 4월 최대풍속을 경신하기도 했다.
 한편 강풍주의보는 평균 풍속이 14m/s, 강풍경보는 21m/s 이상일 때 발효된다. /김경인기자 kki@

직원 동원 아파트 분양률 '뺨뺨기'

2308억원 불법 대출

전남경찰, 6명 입건

아파트 분양률을 조작해 금융권에 수천억원을 대출받은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 임원 및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회사 직원들을 분양자로 허위 계약을 불법대출 받은 대우건설 주택사업본부장 김모(58)씨와 시행사 대표 손모(56)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대우건설은 지난 2009년 광주와 경기도 광명, 대구, 부산, 울산 등 전국 5곳에서 짓고 있던 3700여 세대의 미분양이 심각해지자 건설사 임직원 922명을 정산 계약자

인 것처럼 속여 2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2308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08년 상무지구에 47평형과 55평형 470세대를 분양했으나 1년 동안 분양률이 4%대에 그쳐자 절반이 넘는 245세대에 대해 임직원 이름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 분양률을 55%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으로 488억7000만원을 불법대출했으며 아파트 건설비용과 중도금 이자 납부에 썼다.
 입주가 시작되면서 분양을 신청한 건설사 직원들은 계약 자동 해지로 실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으며 1인당 1000만원의 허위계약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 동구 11개 동에서도

불법선거 유사 조직 운영

검, 7명 추가 기소

전직 동장 투신 사건으로 불거진 광주시 동구 불법선거와 관련 사법처리 규모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동구 2개 동의 불법선거조직 외에 나머지 11개 동에도 유사한 조직이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준)는 3일 유대명(68) 동구청장, 김모(50) 전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 박모(53) 선거캠프 특보, 동구 자원봉사센터 김모(48) 사무국장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유 청장 등은 계림1동 비상대책위원회, 지원2동 경선대책위원회 등 사

조직을 설치,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각 동 조직책에게 지시하고 선거 및 경선운동 자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5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이 자금 중 상당부분이 각 동 조직책들에게 전달됐으며, 조직책들은 이 자금으로 사조직 회원인 통장들을 교육하고 국민경선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 1200명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개 동을 제외한 11개 동의 동 조직책과 참가자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또 박준신 의원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소환을 요구했으나 박 의원이 조사 연기를 요청, 시기를 선거일 이후로 조정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차량훔친 10대 3명 검거

광주 남부경찰청은 3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친 안모(17)군 등 3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군 등은 지난달 30일 새벽 3시에 광주시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여·44)씨의 그랜저 TG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등 고급 아파트를 몰아다니며 총 7차례에 걸쳐 오피러스 등의 차량을 훔친 뒤 타고다니다 붙었다. /김경인기자 kki@

통장 훔쳐 수표 인출했다 덤미

○~40대 여성이 대낮 포장마차에서 통장을 훔쳐 수표로 인출했다가 이사를 하는 등 어리숙한 행동으로 경찰에 덤미.
 ○~2일 광주 동부경찰청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는 한모(여·42)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에 광주시 동구 한 포장마차에서 주인이 잠시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가방에서 통장을 훔친 후 통장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 100만원과 100만 원권 수표를 인출해 사용했다가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표 뒷면에 자신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적어 사용하는 바람에 쉽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본실에 대비해 비밀번호는 통장이 아닌 다른 곳에 적어 놓아야 한다"고 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를 매우 중요시한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졌던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성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원에서 치료하는 약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204-중-4738호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전기세, 난방비걱정은 평생 끝!! 우리집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 쓴다!

신속 계획중인 고객님께서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한수물! 도 태양열로~

발전을 시작하려면 난방이 필수입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월 350kwh 생산 기준)

기준청구요금(사용전력량 : 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5만원(약 321kwh)일때	약 1,130원	48,870원
10만원(약 454kwh)일때	약 8,020원	92,270원
15만원(약 531kwh)일때	약 18,380원	131,810원
20만원(약 597kwh)일때	약 31,010원	169,510원
25만원(약 662kwh)일때	약 47,440원	202,640원
30만원(약 728kwh)일때	약 66,850원	233,150원

설치전문업체가 국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효율의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할 절호의 기회를 드립니다.

주택용 태양광 한전 연계형 계통설비 (3kw이하~10kw이하)설치계통합니다.

최장 36개월 분할상환 가능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

NAVER 강남산업 검색

법인등록번호 : 409-96-22826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

